

JIPYONG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

2016 법무법인 지평 사회책임과 지속 | 2016 JIPYONG ANNUAL REPORT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2016

법무법인 지평

사회책임

보고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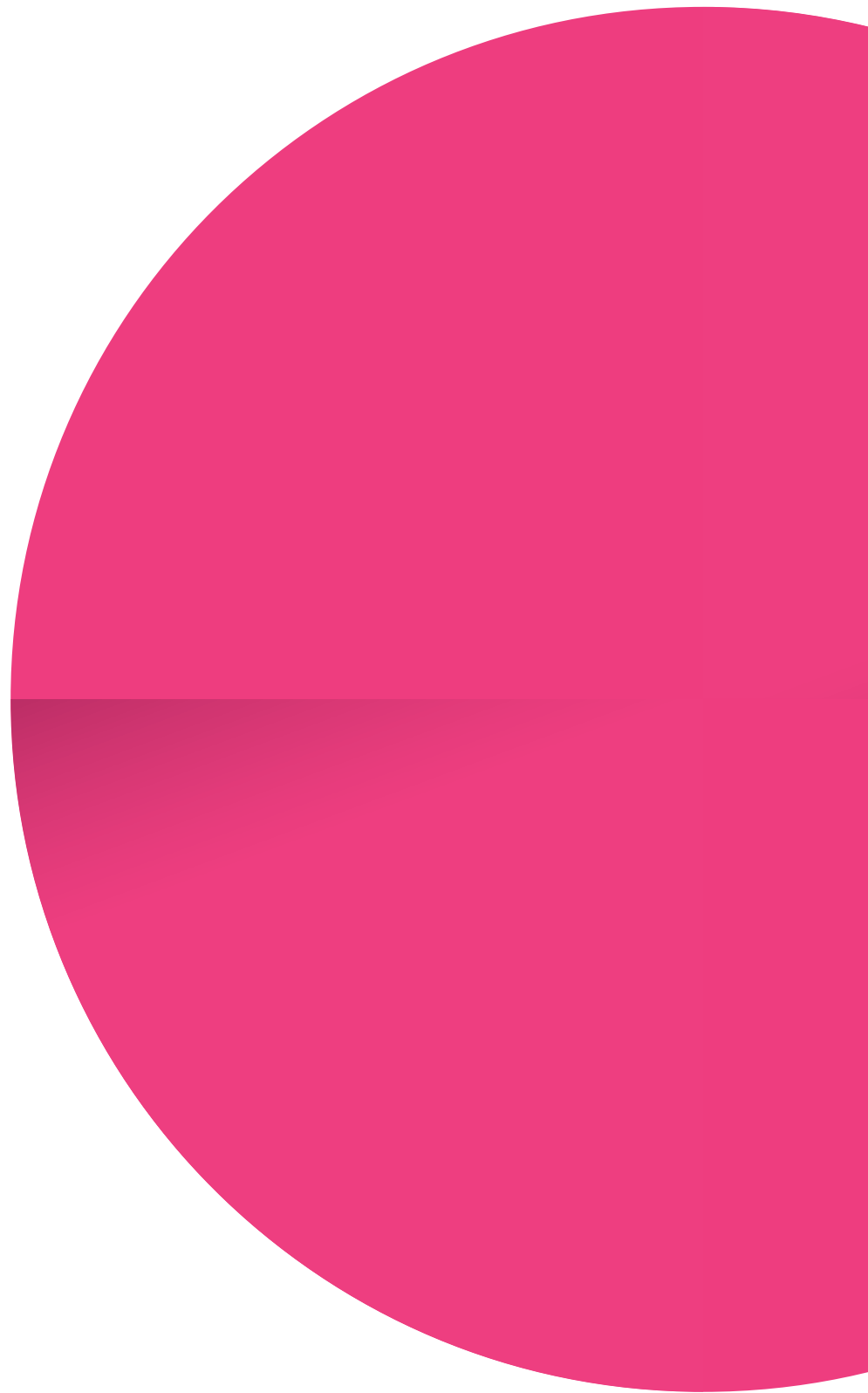
JIPYONG

ANNUAL REPORT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

지평 17년



올바른 마음과 다짐으로
지난 17년을 기록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 지평을 쓰겠습니다.

100년 地平

2016 CSR Highlights	02		
CEO Message	04		
Firm Overview	06		
Vision & Values	08		
구성원과 함께 걸어간다	12	변호사 윤리를 지키다	24
지평의 구성원	12	지평의 윤리현장	24
예비구성원을 존중하는 로펌	16	윤리성 지표 준수	25
직원과 함께하는 로펌	18	공직 퇴임 전문가의 근무 현황	26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로펌	19	향후 계획	27
소수자와 함께하는 로펌	20		
Pro Bono, 공익을 위해 나누다	3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	40
공익정책 & 2016년 공익활동지표	30	법률교육 지원	40
공익활동	32	인문학 연구 및 지원	43
기부의 활성화 '매칭그랜트'	37	법제 연구	44
		환경실천소모임 활동	4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돕다	47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합니다.

Clifford Chance, Linklaters,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등 많은 영미계 로펌들이 사회책임보고서를 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평은 2015년 공익활동보고서(Pro Bono Annual Report)에 처음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을 넣었고, 올해는 독자적인 보고서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과 모습을 이 보고서로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6 CSR Highlights

2016년 법무법인 지평 사회적 책임 이행 내역



법과 윤리

01 로펌 내 이익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지평 윤리헌장 있음
(이익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크시스템 존재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노력 시행 등

2016년 윤리위원회(김지형 위원장)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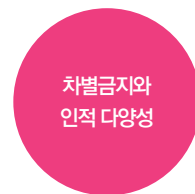
윤리위원회는 법조윤리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변호사 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전문인력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청구,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등을 수행함

02 위법행위 발견 시 통제절차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있음
(윤리헌장 13조 :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절차)

03 공정한 전문가 활용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제한 의무 준수



차별금지
인적 다양성

01 구성원의 다양성

높은 여성변호사 비율(전체변호사 중 31.9%, 파트너 중 16.9%)

시각장애인 미국변호사 채용(2015. 9. 1.)

전체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음
(해외지사를 포함할 경우 2.4%에 그쳐 의무고용률에 미달함)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근무

탈북민 근무

'예비구성원회의(예비구성원변호사 모임)', '소울(직원모임)' 등을 통하여 경영과정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02 소수자 차별금지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있음
(소수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차별금지 등을 강조하며 교육함

장애인차별금지 활동을 주요 공익활동으로 설정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사용

03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성별,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함

입사지원서에 능력과 무관한 부모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음

신입변호사들은 모두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0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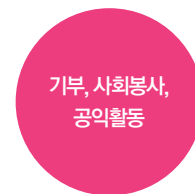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변호사 7명, 직원 13명 육아휴직 사용(2016년 기준)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3명)

임신 기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시행(6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무제 시행(2건)



기부, 사회봉사,
공익활동

기부, 자원봉사, 공익소송의 수행·지원, 무료법률상담,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 예비공익변호사 양성·지원, 공익단체 지원, 공익법 연구, 공익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입법지원

전체구성원 총 공익활동 5,433.06시간

상세내용은 공익활동지표 참조(30~31쪽)



법조인 양성

01 수습변호사 연수

하계 및 동계 인턴 프로그램 시행

사단법인 두루 공익 인턴 프로그램 지원

02 로스쿨 실무과목 교육 지원

소속변호사들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로스쿨 등에서 실무과목 강사로 활동



적절한
사건 수임

01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수임 배제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 수임 배제(윤리헌장 3조)

02 과도한 사건 수임 자제

탈법적 방법의 수임금지

과도한 수임 경쟁 지양



환경

01 탄소배출 감소 활동, 재활용품 사용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기절약 캠페인, 중고책방 등 자원순환 운동 전개

이면지 사용 등 재활용품 사용 권장

02 환경 관련 NGO 지원

환경 공익소송 수행(송전선로 피해보상 관련 헌법소송 진행 중)

환경 관련 NGO 지원



정보공개와
사회적 책임 보고

01 구성원 현황 등에 대한 로펌 정보공개

로펌 정보공개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의한 정보공개

02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2015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에 사회적 책임 이행 항목을 포함한 데 이어, 로펌 최초로 2016 법무법인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 위 표의 항목은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법과 사회 제43호, 2012년 12월)을 통해 제안한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의 통계와 활동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CEO Message

처음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성년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2만 명의 시대가 열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로펌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날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세월 어렵게 쌓아온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담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난민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지금까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로서 사회에 공헌하고자 분투하였습니다.

나라 안에서 안주하기보다 밖으로 나가 활동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는 물론 러시아와 이란에 9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국내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중심과 공익, 그리고 개척정신을 품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왔고,
고객과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지평이 걸어온 성장과 고민의 이야기를 첫 지속가능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내 로펌으로서 처음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내어놓기에 부끄럽습니다만, 새로운 도전으로 너그럽게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Firm Overview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되었다. 탁월한 실력과 정성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해결책을 제공하는 로펌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윤리성과 공익성 및 민주성을 실천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로펌을 만들자는 것이 지평의 창립정신이자 목표였다.

지평은 창립 17년만에 변호사 180여 명, 기타 전문가를 합하여 전문가 190여 명으로 성장하였고, 국내지사 2개, 해외지사 9개를 가진 글로벌 로펌으로 발전하였다. 지평은 소송·중재, M&A, 국제거래, 금융·증권·사모펀드,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노사관계, 도산·구조조정, 조세,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자원·에너지·인프라, 제약·바이오·의료, 엔터테인먼트·미디어·문화, 형사, 해상, 가사, 헌법소송, 공공계약, 입법지원, 해외업무, 북한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평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및 이란에 9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업무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로펌 중에는 ‘ownership’을 지배구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구성원변호사의 ‘partnership’으로 운영된다. 지평은 ‘partnership’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아가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다. 즉 지평은 구성원과 소속변호사의 관계를 일방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장래의 동업자(partner)로 본다.

현대사회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목표로 삼는 것처럼 로펌도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회정의와 인권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조직인 로펌의 사회적 책무는 더욱 무겁다. 지평은 구성원,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정의와 인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다.

지평의 사무소

주사무소(본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master@jipyong.com

순천 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3층
Tel 061-724-2001 Fax 061-725-7604
Email suncheon@jipyong.com

부산 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601호
Tel 051-502-2008 Fax 051-502-2340
Email busan@jipyong.com

중국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 Chi Minh City, Vietnam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Suite 3505, 35F,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New Urban Area, Me Tri Ward,
Nam Tu Liem Dist., Hanoi, Vietnam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9F, Phnom Penh Tower, #445, Monivong Blvd.
(St.93/232),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
Vientiane, Laos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Gedung Artha Graha 23F, Jalan Jenderal Sudirman
Kav. 52-53, Lot 25,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미얀마 양곤 사무소

No. 140/A, Than Lwin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119002, 43, Sivtsev Vrazhek Lane, Moscow, Russia

이란 테헤란 사무소

3F, No. 148, Dast Gerdi St.
(former Zafar St.), Shariati St., Tehran, Iran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파견)

Dubai Office, Pinsent Masons LLP, Level 8,
The Offices 1, (adjacent to the Dubai World Trade
Centre), One Central, PO Box 115580, Dubai,
United Arab Emirates

지평의 조직체계와 지배구조

지평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은 파트너총회다. 파트너총회에서는 대표 및 경영위원 선출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대표변호사 및 경영위원회(managing committee, 회사의 이사회에 해당)는 지평을 대표하고 경영을 담당한다(2016년 대표변호사 이공현, 양영태, 경영위원회 양영태, 김상준, 박영주, 김지홍, 이행규). 지평은 로펌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파트너변호사뿐 아니라 소속변호사, 직원의 주인의식과 자발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비구성원회의 및 직원모임이 결성되어 있으며 지평의 경영에 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지평의 업무조직은 소송그룹, 자문그룹, 해외업무그룹으로 크게 나뉘어 있고, 업무분야별로 그룹을 뛰어넘어 다양한 전문팀을 꾸리고 있다. 전문분야별 팀 이외에도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등 미래산업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미래산업법연구회가 2016년에 결성되었다.

법무법인 지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 현재 4명의 공익 전업변호사(full time pro bono lawyer)가 일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문학의 발전 위에 법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평인문사회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건설부동산팀	증권금융팀	M&A·Corp팀	공정거래팀	노동팀	IP·IT팀	형사팀	해상팀
헌법·행정팀	상속·가사·가업승계팀	조세팀	입법지원팀	윤리경영지원팀	국제컨설팅	국제분쟁팀	
도산·회생·구조조정팀	중견·중소기업팀	에너지·자원·인프라팀	바이오·제약·헬스케어팀				
미래산업법연구회	Elderlaw 실무연구회	PF사업 정상화센터					

중국팀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골팀	베트남팀	캄보디아·라오스·태국팀	인도네시아팀	미얀마팀		
이란·중동팀	일본팀	북한팀	필리핀팀	싱가포르·말레이시아팀	인도팀	중남미팀	영국·독일·유럽팀
미국팀	아프리카팀	오세아니아팀					

Vision & Values

지평의 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Only One 로펌'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 심화, 해외사업의 확대, 고객 만족도 제고, 사회공헌활동의 강화, 조직 내 소통과 재미 증진 등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지평의 비전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지평의 가치



지평의 10대 차별화 과제

지평은 2016년 파트너 워크숍에서 10대 차별화 과제를 선언하였다. 10대 차별화 과제는 지평의 창립정신에서 출발한 구체적 과제이기도 하다. 지평은 대형로펌이 일반적으로 걸어온 길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길을 걷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가 로펌의 새로운 지평을 만드는 길이요, 한국사회 또는 한국법조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01

일을 잘하는
전문화된 로펌

02

모두가 주인이
되는 로펌

03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로펌

04

글로벌한
로펌

05

공익활동을 가장
잘하는 로펌

06

윤리적인
로펌

07

자기 발전을
지원하는 로펌

08

여성을
존중하는 로펌

09

소수자를
배려하는 로펌

10

환경을
생각하는 로펌

2016년 지평 송년의 밤

일시 | 2016년 12월 22일(목)

장소 |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젝시가든)

JIPYONG 법무법인 지평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구성원과 함께 걸어가다



01

지평의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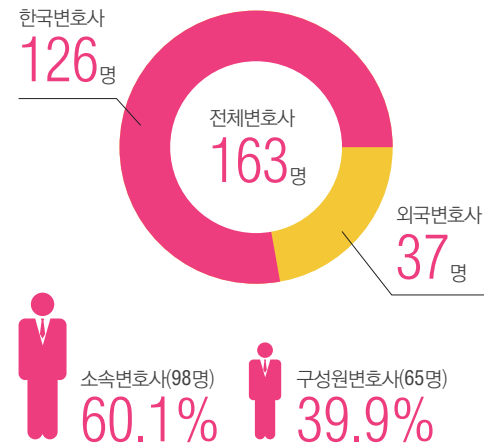
구성원 개요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professional)와 직원(staff)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로펌(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합명회사를 존용하고 있다(주식회사와는 성격을 달리 함). 로펌의 변호사는 구성원인 변호사(구성원변호사, partner)와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소속변호사, associate)로 구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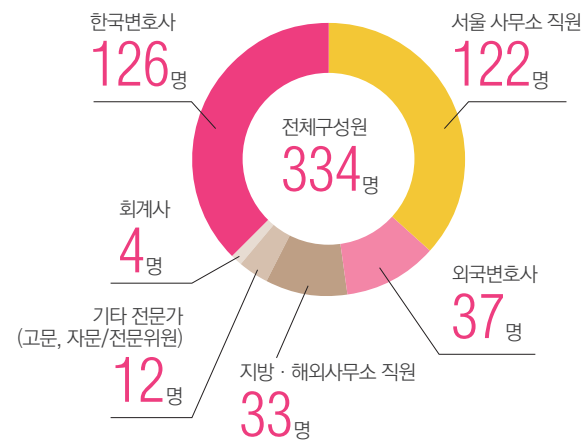
지평의 전체구성원 334명 중 변호사 등 전문가는 53.6% (179명)이고, 직원은 46.4%(155명)이다. 2016년 기준으로 지평의 변호사는 163명인데(현재 172명), 그 중 한국변호

사는 126명(현재 135명), 외국변호사는 37명(현재 33명)이다. 외국변호사 중 본사 근무 변호사는 14명, 해외지사 근무 변호사는 24명이다. 외국변호사의 자격국은 미국,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 등이다. 국내 로펌 중 해외지사가 가장 많은 만큼 변호사 자격국가도 많고,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는 변호사의 39.9%(65명)이고, 소속변호사(예비구성원)는 60.1%(9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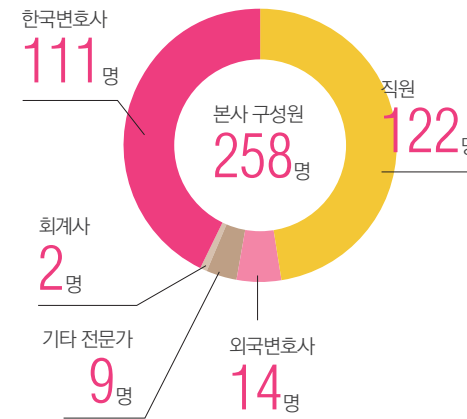
전체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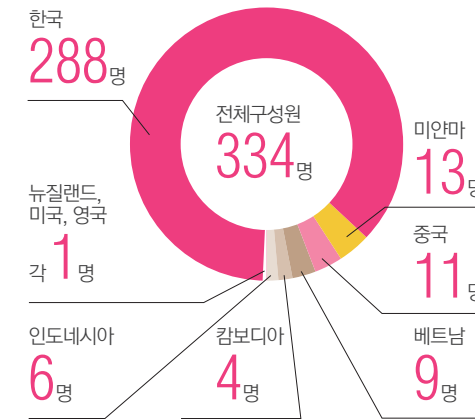
전체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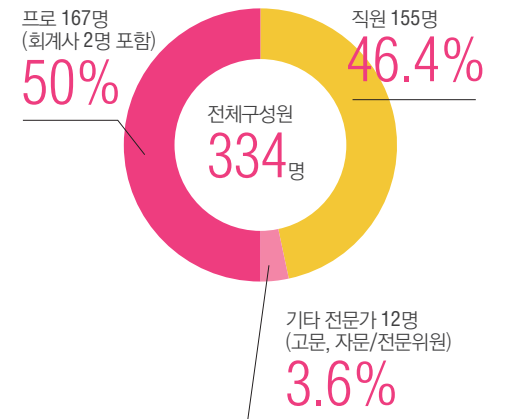
본사 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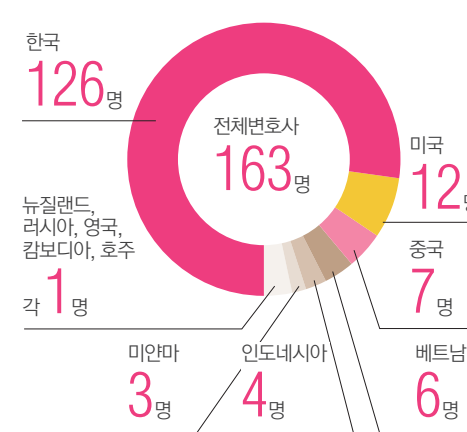
전체구성원 국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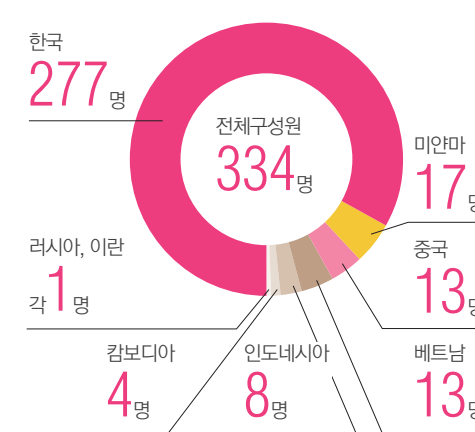
전체구성원 비율



전체변호사 자격국 구성



전체구성원 주재국 구성



변호사 채용정책

지평의 변호사 채용정책은 한마디로 '동업자 찾기'다. 전 문가조직의 특성상 도제식 훈련과 엄격한 업무지도관계가 따르지만, 지평은 예비구성원을 근로자가 아니라 미래의 동업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일 잘하는 신입변호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평을 물려줄 주인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지평의 철학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 역지사지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동료와 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선발기준이다.

지평은 학벌에 대한 편견이 없고, 다양한 학교 출신으로 변호사를 선발하고자 한다. 다만 선발결과를 보면 서울대학교 등 특정 대학 출신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5년 간 지평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에서 비교적 다양한 학교 출신을 선발하였으나, 한국변호사를 기준으로 보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86명 중 60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40명 중 14명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다.

학부(사법시험)별 변호사 구성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구성



지평의 채용정책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채희석 변호사(HR위원회 위원장)



지평 HR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 HR위원회는 신입변호사 채용과 채용 후 회사생활의 적응 지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HR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확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시적으로 모여서 채용에 관한 논의를 하고, 확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입변호사 채용 여부를 결정하나요?

변호사 채용은 인턴제도,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지원제도, 기타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턴 중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인턴기간 중 여러 차례 평가를 하여 상임위원회와 확대위원회가 협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인터뷰를 하여 결정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지원, 추천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지원자도 상임위원회와 확대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을 하면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공정한 방식의 채용, 균형 있는 선발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HR위원회는 성별,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법무관/재판연구원, 장애 유무 등에 대해서는 선입견 없이 채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로펌보다 여성변호사들의 비율이 높은데요. 아무 제한이나 편견 없이 채용을 결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혼인 여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나이에도 관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저희는 특별한 선호 없이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대우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가 있는 변호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미국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내부에서 다소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외국변호사가 하는 업무 가운데는 급박하게 요청 받

아서 수행해야 하는 자문이 많은데 과연 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 첫 사례라 모험이었습니다. 논의를 하는 중 "이런 도전을 해보려고 우리가 지평을 만든 것 아니냐"는 김지홍 변호사의 메일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그때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HR위원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용시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할당하는 방식이나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추가 채용을 위해 정원을 남겨두는 방식, 성비가 다소 늦게 나타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해 선발 정원을 남겨두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는 별도의 인턴제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신입변호사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요?

현재 신입변호사들은 모두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하고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급여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02

예비구성원을 존중하는 로펌

예비구성원의 참여

지평은 모두가 주인공인 로펌,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을 지향한다. 지평은 이런 관점에서 소속변호사를 예비구성원이라고 호칭한다. 지평은 예비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비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편 예비구성원들은 예비구성원회의를 만들어 업무 및 경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예비구성원회의를 소개합니다 민창욱 변호사



지평 예비구성원회의(associate community)는 지평에 근무하는 예비구성원(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포함) 전원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2009년 10월 1일 구성원변호사와 예비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예비구성원회의는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 부대표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집행부)를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은 연차별 한국변호사 대표자, 여성 및 외국변호사 대표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비구성원회의는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대표 등을 선출하고, 당해 연도 주요 사업 등을 보고/의결합니다. 대의원회는 매월 정례 모임을 갖고 현안을 점검합니다.

2016년 3월 신입변호사들과 다녀온 워크숍에서는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 '2016년 지평 예비구성원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연차별 소모임을 실시하여 보고서에 담을 의제를 발굴하였고, 9월 정기총회에서 보고서 개요(안)를 의결한 뒤, 격주로 편집회의를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1월 95쪽 분량의 책자로 출간되어 지평 전체 프로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업무 배당, 협업, 급여, 장기연수, 육아휴직, 공익활동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 예비구성원회의는 구성원변호사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는 오랫동안 지평의 대표를 역임한 조용환 변호사님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경영위원회와 공식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구성원회의가 지평의 선·후배 및 동료들을 연결하는 모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구성원에 대한 교육

지평은 끊임없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 세부 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을 쌓고 법률을 보는 전반적 시야를 넓히는 '통섭'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변호사의 글쓰기, 말하기, 듣기 등 기본적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로펌 최초로 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교육연구위원회는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성택, 김지홍, 심희정, 최진숙, 장윤정, 류혜정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교육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평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과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우선 '지평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평 안팎의 다양한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입변호사에게는 매주 금요일마다 15회에 걸쳐 법률실무 전반에 대한 학습을 하게 하는 '금요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변호사들이 작성한 의견서 등 서면을 교육연구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강평하는 '서면 강평회',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함께 연구하는 '판례 세미나', 세부 법률분야별 '전문분야 세미나', 글쓰기, 상담법, 프리젠테이션 기법, 협상론 등을 배우는 '실무 세미나', 기타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 장기연수

많은 로펌들이 해외연수를 포함한 장기연수를 축소하는 추세이지만, 지평은 변호사에 대한 장기연수를 여전히 중요한 교육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지평은 미국 로스쿨 LL.M.과정 이외에도 해외사무소 근무, 외국로펌 근무, 국내 기업 및 정부기관 근무 등 다양한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장하고 있다. 현재 입사 후 4년 반(법무관 출신) 또는 5년 반(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이상 근무한 한국변호사에게 연수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에는 5명의 변호사가, 2016년에는 2명의 변호사가 해외연수를 시작하였다.

2016년도 지평아카데미

일자	강연자	강연주제
2016-01-20	전원철 박사(중앙아시아 및 북방민족 사학가)	고구려-발해인 칭기스 칸
2016-04-20	임성택 변호사	문장론
2016-06-15	김상준 변호사	변호사와 협상
2016-09-21	김진희 외국변호사	Inhouse Insight
2016-11-16	박정수 변호사	법관에게 친화적인 변론 방법과 서면 작성

2016년도 금요세미나

일자	강연자	강연주제
2016-04-01	배성진 변호사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2016-04-08	강울리/이승현 변호사	담보와 대출계약
2016-04-15	김영문 변호사	수사절차와 형사재판절차
2016-04-22	권순철 변호사	도산법 개관
2016-04-29	임승혁 회계사	기업회계 및 기업조세제도 개관
2016-05-13	손계준 변호사	공정거래법 개관
2016-05-20	여연심 변호사	근로기준법 개관(고용과 해고 중심)
2016-05-27	최승수 변호사	지적재산권법 개관
2016-06-03	심희정 변호사	금융규제제도 개관
2016-06-10	임성택 변호사	건설부동산 업무 개관
2016-06-17	박성철 변호사	행정법의 기본 원리
2016-06-24	장윤정 변호사	상법의 주요 쟁점(상장회사 특례 포함)
2016-07-01	이행규/채희석 변호사	자본시장법 개관
2016-07-08	박용대 변호사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
2016-07-15	채희석/유정한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

03

직원과 함께하는 로펌

지평은 변호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지원을 하는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평은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팀장회의, 직원운영위원회 등에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직원모임 '소울(소통과 울림)'은 직원들의 단합과 소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지평은 직원들이 중심이 된 각종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 동아리인 '다감다사(多感多思)', 꽃꽂이 동아리 '지화자', 수화를 함께 배우는 수화소모임 '수다', 볼링동호회 등 다양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평 직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또는 다른 대형 로펌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경제적 보상도 아직 부족한 편이다.



지평의 소울('SOUL')을 소개합니다
등기팀 김태오 차장

소통과 울림(구성원 간의 마음 울림이 소통되는 모임)

설립 목적 | 소통과 울림(이하 '소울')은 지평 서울 사무소 직원모임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회원 간 소통을 통해 따뜻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울은 직원의 원만한 소통과 화합에 목적을 두고, 직원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사측과 협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경과 | 2015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총회에 회장, 총무, 감사로 이루어진 선출직 임원과 간사로 이루어진 지명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2016년 2기까지 선출하였습니다.

활동 내용 | 소울은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8회, 2016년에는 총 7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고, 가장 큰 행사는 정기총회와 임원선출입니다. 이외에도 SOUL's Culture Day라는 이름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다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11월 11일에는 가래떡을 나누거나 명절에 선물을 나누는 등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소소한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소울은 소중한 만남 그리고 그 속에 울리는 따뜻함을 잊지 않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앞장서려고 합니다. 지평 식구들이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소울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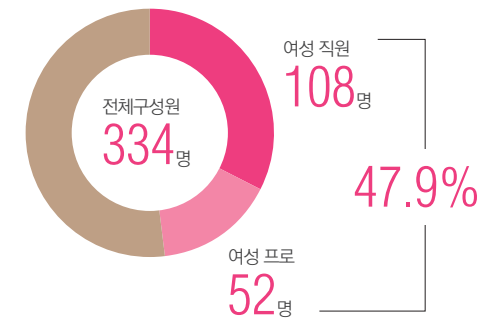
04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로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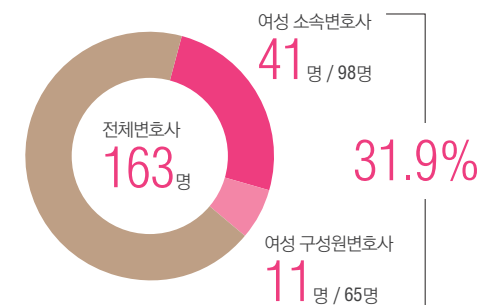
개요

지평의 전체구성원 중 여성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 중 여성의 비율은 31.9%(본사 기준 33.6%)이다. 전체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비서직 전부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개업변호사 중 여성 비율이 23.4%(대한변협 자료 2016년 5월 4일 기준), 6대 로펌의 여성변호사 비율이 22.3%(머니투데이 2017년 4월 8일 기사)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이는 채용과 업무 등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해온 결과이다. 다만 한국사회의 일반적 수준과 비교하면 높지 않고, 구성원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아직 16.9%에 그치고 있다.

전체구성원 중 여성 비율



변호사 중 여성 비율



일과 가정의 양립

지평은 과중한 업무에 쫓기는 와중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변호사들에게도 인정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이 어려운 변호사를 배려한 휴직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평은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지평의 출산 여성 직원 대부분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복귀 시에 휴직 전 직급/직무로 배치되고 있다.

다만 여성변호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장 3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의 경우 임신 기간 단축 근로나 탄력적 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들에게는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지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

2016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	변호사	총 7건 출산휴가만 사용 2건, 출산휴가/육아휴직 포함 사용 5건
	직원	총 13건 육아휴직만 사용 2건, 출산휴가/육아휴직 포함 사용 11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포함)	변호사	평균 5개월 10일
	직원	평균 1년 4일
2016년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용 실적		총 3건(배우자 출산휴가 3일 사용)
(법정) 보육시설 설치 여부와 현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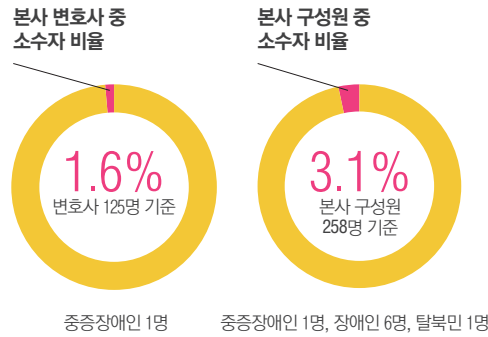
출산 관련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기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부) 2시간 단축근로 시행(직원, 6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무제 시행(직원, 2건) 임신 및 출산(육아)시 대체 인력 수급 절차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휴직자 복귀 시점 조율로 인원 대체 대체가 어려울 경우 신규 채용 진행 (인원 충원 필요 시 정규직 또는 휴직자 복귀 시점까지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검토) 교체가 어려울 경우 휴직 중인 부재 직원 업무 대체 직원 지원 (1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인해 장기 부재하는 직원의 업무를 팀원 등이 분담/업무 가중되는 직원에게 추가 수당 지원) 출산으로 인한 인사평가(유학 대상, 승진) 시 사실상 불이익 제공 여부 : 없음
-------------	---------------------------------------------------------------------------------------------------------------------------------------------------------------------------------------------------------------------------------------------------------------------------------------------------------------------------------------------------------------------------------------------------------------------------------------------------------------------------------------------------------------------

05

소수자와 함께하는 로펌

지평은 소수자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민간사업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인데, 지평 본사의 경우 3.1%로 이를 초과하고 있다. 다만 해외지사를 포함할 경우 전체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2.4%에 그치므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다.

변호사 중 시각장애인(전맹, 외국변호사)이 1명 있다.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로펌에서 일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이다. 지평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1명이 송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 비율 산정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은 2배에 해당하는 고용으로 보았다.

수화 소모임 '수다'

지평에는 '수다'라는 이름의 수화소모임이 있다. 변호사, 직원들로 구성된 소모임 구성원들은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마다 수화 강사로부터 수화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수다 구성원들은 수화를 배움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고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수화를 익히고 있다.



점자명함 사용

지평은 구성원들의 명함을 점자로 제작하고 있다. 지평의 점자명함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소통의 의지이자, "법이 사회적 소수자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이다.



나의 입사기 정진 외국변호사(미국)



저는 저시력 장애가 있어 확대경을 사용하며 공부하여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에 입학하였는데 그 즈음 시력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전맹 상태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한국에 돌아와 공익 기관에서 인턴을 하며 화면낭독 프로그램과 지팡이 사용을 연습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는 지평에서 인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장애인들이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경쟁적인 영역에 도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미국에서 잠시 일하던 중 기회가 되어 지평에서 채용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 덕분에 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난관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노력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도전하였습니다.

입사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끊이지 않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해결책을 찾아가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 비서 분은 문서에서 수정된 부분, 대문자로 표시된 단어 등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 앞, 뒤에 미리 제 이니셜인 JJ로 표시를 해주곤 합니다. 창의적인 방식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꼭 비용이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평과 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곳에서 난관을 헤쳐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채용기 인사총무팀 천춘미 부장



회사의 비전과 가치 중, '사람중심'이라는 가치에 걸맞게 경영진에서는 사회적 약자 채용을 장려하고 있어 인적 구성 비율에 맞게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탈북민을 채용하여 3년째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탈북민을 채용하려고 계획하였을 때, 사실 우리와 잘 융화할 수 있을지, 문화적 차이는 어떨지, 여러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적응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 탈북민 채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채용되었던 탈북민은 비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많은 구성원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였고 무엇보다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러웠고, 문제 파악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이후 송무팀에 다시 탈북민이 입사하게 되었는데, 남자들로만 구성된 송무팀에서 누구보다 업무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넘어서 회사의 공익봉사 활동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고 있고, 입사 3년만에 벌써 2번이나 우수 직원상을 받았을 정도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탈북민 채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경영진과 당사자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회사 구성원 모두의 편견 없는 시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6 지평 사회 책임 보고서

변호사 윤리를 지키다

01

지평의 윤리현장

지평은 설립연도인 2000년에 이미 「법무법인 지평 윤리현장」을 제정하였다. 윤리현장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이해관계 충돌,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을 두고 있다.

윤리현장 제1조에 의하면 지평의 구성원들은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윤리규범의 내용을 항상 이해하고 성실히 지켜야 하며 지평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에 관하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평은 윤리현장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22일에는 전문인력 징계규정을 제정하였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지평은 2016년 7월 1일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김지형 위원장)를 다시 정비하였다.

윤리위원회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현장의 실현 및 법조윤리 이행을 위하여, ① 변호사법, 윤리현장, 윤리규정, 기

타 법조윤리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② 변호사 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③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전문인력징계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구, ④ 구성원에 대한 윤리교육, ⑤ 기타 윤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또한 윤리위원회 규정에서는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내부고발과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윤리위원회는 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법인 지평 윤리현장(조문 일부)

4.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4.1. “최선의 노력”이란 업무처리과정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전문지식과 관행, 의뢰인과의 합의, 지평이 정한 업무처리 기준은 물론 구성원 스스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 4.4.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의 처리과정 및 내용에 관하여 신속하고 상세하게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5. 지평의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사회정의 또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법무법인 지평의 구성원들은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8. 지평의 구성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8.1. 지평의 구성원들은 지평과 그 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평의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한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8.2. 지평의 구성원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말과 행동, 회사 의 관리 및 제3자에 대한 관계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지평의 구성원들은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비롯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10.1. 지평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신분, 그 밖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의뢰인 또는 조력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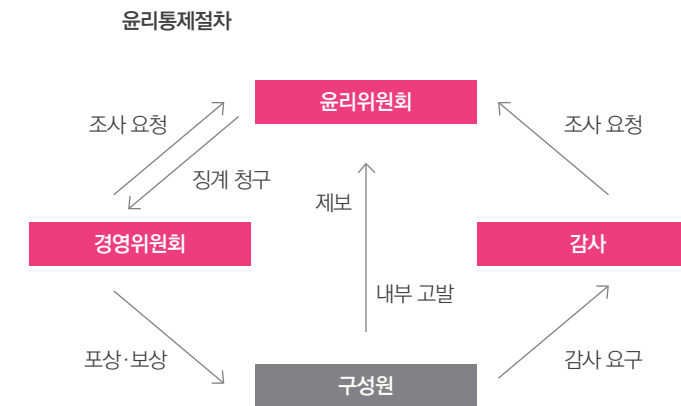
02

윤리성 지표 준수

항목	존재 여부
이익충돌 시 내부통제절차	○
위법행위 발견 시 내부통제절차	○
부정청탁금지법준수기준여부, 교육여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
전관 변호사 및 비법조인 전문가 활용에 관한 법조윤리정책	○
비법조인 전문가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

지평은 윤리성이 문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경영위원회와 각 팀장들이 윤리현장에 기초하여 논의하여 결정해 왔다. 예를 들어, 위 지표 중 사건수임 과정에서 이익충돌이 문제되는 경우나 과다수임, 비윤리적 사건수임에 관한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구성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다만, 과거 소송수행 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업무수행방법에 대해 한 예비구성원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트너 및 팀장들이 충분히 논의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 수임을 철회한 경우가 있었다.



03

공직 퇴임 전문가의 근무 현황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지평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영입하더라도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하였던 국가기관의 사건에 관하여는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지평이 영입한 공직 퇴직 법조인은 우측 표와 같다.

공직 퇴직 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 시 직위	비고
강경운	1998-08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순천 사무소
강성국	2015-02	2015-03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본사
강호정	2012-02	2013-12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	부산 사무소
김영문	2015-02	2015-03	대구지방법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본사
김지형	2011-11	2012-12	대법관	본사
박영주	2001-02	2001-02	부산지법 판사	본사
박정수	2015-02	2015-03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본사
사봉관	2016-02	2016-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본사
신승기	2007-08	2012-06	부산지방법검찰청 특수부 검사	부산사무소
이공현	2011-03	2011-03	헌법재판소 재판관	본사
이상근	2007-02	2012-06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사무소
이홍재	2009-01	2013-04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외사부장검사	본사
최세훈	2016-01	2016-02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본사
한재철	2002-02	2011-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판사	순천 사무소

공직 퇴직 비법조인

성명	공직 퇴임일	입사일	퇴직 시 직위	비고
강영주	2002-04	2009-0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본사
김대식	2013-02	2015-03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본사
김석동	2013-02	2015-04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사
서문용채	2011-02	2014-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본사
이준길	2006-11	2015-1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팀장	본사
장항석	2007-10	2012-10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본사
진연수	2006-12	2012-1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사무관	본사

비법조인 전문가와의 협업은 해당분야의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지평이 비법조인 전문가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영입한 공직 퇴직 비법조인은 우측 표와 같다.

04

향후 계획

지평은 2016년 경영위원회가 사실상 겸하던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경영위원회는 윤리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때 후자를 우선시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수임과 수행에서 변호사 윤리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변호사 윤리는 새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평은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독립적인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변호사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이익이 되며, 로펌의 지속가능성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평의 변호사 윤리 실천을 위한 계획 김상준 변호사



사건수임과 수행에서 변호사 윤리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변호사 윤리는 새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펌이 수익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위치에서 로펌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고 성찰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평은 윤리성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에 경영위원회와 각 팀장들에게 메일로 사안을 설명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도 하였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영위원회는 윤리성과 수익성이 충돌할 때 후자를 우선시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평은 2016년 윤리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하고 규정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Pro Bono, 공익을 위해 나누다

01

공익정책 & 2016년 공익활동지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사회적의와 인권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며 설립과 동시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의 공익위원회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공익활동규정을 로펌 최초로

제정하였고, 설립 직후에는 연 50시간, 현재는 연 20시간의 공익활동을 변호사의 의무로 정하여 실천해 왔다. 지평이 구성원에게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정한 것은 변호사 협회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때보다 더 빠른 것이었다.

지난 17년 간 지평 공익위원회는 공익활동을 기획·지원하고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국내 법무법인 사

회공익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 지평은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비영리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다. 두루의 설립취지는 사회정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두루는 공익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보다 따뜻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1.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6년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명칭 : 지평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4:125 (변호사 100명 당 3.2명)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공익위원회 위원, 두루 상근변호사,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트 및 공익소송, 공익자문 등 행정업무 지원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연간교육시간 : 16시간
B 활동	1.B.1 총 공익활동 시간	5,433.06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2.84% (5,433.06시간 : 191,184.18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3.46시간 (5,433.06시간 : 125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5.66시간 (5,433.06시간 : 119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5.20% (119명 / 125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71.20% (89명 / 125명)

분야	평가지표	2016년
1.B.7	소속변호사 67명	94.03% (63명 / 67명), 42.16시간 (2,825시간 : 67명)
	구성원변호사 58명	96.56% (56명 / 58명), 44.97시간 (2,608.06시간 : 58명)
	공익활동 지원비	22,280,308원
	공익활동 교육 지원비	4,079,475원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222,970,000원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249,329,783원
B 활동	1.B.9 공익활동 수처	공익소송 대리 : 75건 공익자문 의견 : 368건 공익상담 : 223건 도움받은 사람 : 약 666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 공공기관, 협력 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 · 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 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지원자 배당
	1.B.12 공익활동 지원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C 평가 · 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 · 승진 · 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 ·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 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예비구성원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6년
A 기부	2.A.1 기부 총액	222,970,000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655,582원 (335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5.60% (213,170,000원 : 222,970,000원)
	2.A.4 기부 현황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B 사회봉사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2172.5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6.49시간 (335명)
	2.B.2 사회봉사활동 현황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국내변호사 125명(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 포함/입사유보자, 비상근고문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공익 전담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직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입사유보자, 비상근고문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상세 내용은 별도의 2016 지평 · 두루 공익활동보고서 참조

02

공익활동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2016년 4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위 연구용역은 바닥면적 및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등의 내용과 문제점,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활동

- 법학적성시험 응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임시구제청구 수행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인강재단 관련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이사회임명명취소소송 수행
- 중증장애여성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과 장애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 자문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집 <우리 모두 소중한> 개정판 감수
- 장애인법총서 중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 집필
-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시 민관합동 지도감독 참여



시·정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지평과 두루는 2016년 2월 시·정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극장운영업체를 상대로 화면해설,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극장은 이미 시·정각장애인을 위한 기기를 개발하여 상용 중이고, 국내 영화계에서도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지평과 두루는 2016년 7월부터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 TF를 결성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지평과 두루는 여러 장애인재단 산하시설의 인권침해에 법률지원을 한 경험을 기초로 9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하고 있다.

미혼한부모생활시설과 미혼모대안학교 법률교육 진행

애란원은 국내 최초의 미혼모자생활시설로 그 역사가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면적으로 법률을 다룬 교육은 지평이 처음이었다. 지평과 두루는 2014년부터 헌법과 인권, 십대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범죄, 입양, 혼인과 이혼,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주제로 미혼모들을 만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활동

- 아동학대형사사건 피해아동 대리
- 학대피해아동 파양사건 대리
- 준강간사건 피해청소년 대리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대리
- 입양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위한 입법운동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시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법률자문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파견 및 법률자문
- 미혼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 법률자문 및 십대미혼모 법률교육

입양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대리

지평과 두루는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의뢰받아 파양사건과 함께 아동학대형사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대리하였다.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입양을 전제로 위탁된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사건이다. 지평과 두루는 한부모가족이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 혁신리더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아산나눔재단의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사업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혁신리더로 선정된 아동·청소년단체와 지평과 두루 소속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되어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를 위한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수용자인 보호자의 친권·후견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소년보호사건을 대리하는 등 수용자 자녀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평과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함께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부모체포 시 가이드라인, 아동의 수용자 부모에 대한 면접권, 장기수용자 부모 관련 후견제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요보호아동체계 등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자 한다.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업무매뉴얼 감수

지평과 두루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의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가 집필한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위한 의료업무매뉴얼>의 법률부분을 맡아 작성하고 감수하였다.

이주민·난민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대리

지평과 두루는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과 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지평과 두루는 트랙터를 몰다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자문 및 지원

지평과 두루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친구'는 2011년 12월에 설립되어 이주민들의 인권,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두루는 친구에서 발간한 상담사례집을 감수하고, 정기적으로 친구에서 이주민들과 상담을 하면서 친구와 연대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외국인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수행

한국에 온 뒤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A씨는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들과 고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생명이 위태롭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놓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A씨의 꿈을 지평과 두루가 지원하고 있다. 난민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지평과 두루 역시 난민의 사회 정착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기타 활동

- 몽골 유학생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대리
- 파키스탄 기독교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리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송 대리
-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 IVECA(International Virtual Elementary Classroom Activities) 한국 내 비영리법인 설립 및 회계 등 운영업무 법률자문
-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자문 및 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자문
- 미얀마 한인회 법률자문
- 외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관련 법률자문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교의 지속적 괴롭힘 관련 법률자문
- 농·축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지원
- 법무부 투자 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이란편) 제작 참여 및 지원

그 밖의 권익옹호활동

지평은 두루와 함께 여성, 노동, 환경, 통일 등 다양한 공익 법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위헌결정 승소

지평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막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도 인정하였다. 이번 위헌결정은 선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선거법제와 언론관계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피해자 무고사건 승소

지평과 두루는 '한국여성의전화'의 요청으로 성폭력피해자 무고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회식에 참석했다가 맞은 편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피해에 대하여 수사하다 오히려 성폭력피해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2015년 1심 무죄판결에 이어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판결, 2016년 8월 상고심에서도 검찰 상고기각판결을 이끌어냈다.



기타 활동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 헌법소원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환경 / 송전선 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 여성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고소송
- 여성 /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 노동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자문
- 노동 / 서울여성노동자회 법률자문
- 통일 / 남북한 국토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 통일 / 통일특구법 검토
- 통일 /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
- 인권 전반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인권침해 정기상담
- 인권 전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
- 인권 전반 /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 시민단체 / 나눔문화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쇼카 한국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법률자문
- 시민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시민단체 / 기부금 관련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름다운재단 법률자문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지평은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스토킹 피해로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다. 가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스토킹 및 협박 사실을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다투어 왔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의 요청으로 지평이 지원하게 되었고, 가해자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대리

지평과 두루는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지평과 두루는 경찰이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발생하였을 때 범행현장 근처에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있었는지 보호관찰소에 조회해 보지 않은 점,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법령위반을 주장하였다.

사회봉사활동

지평은 두루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따뜻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 정리를 함께하고 있다. 노숙인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겨레얼학교' 봉사활동

지평은 겨레얼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정 후원과 함께 법률교육 및 법정프로그램 견학, 가을소풍, 탁구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0월 설립된 기숙형 대안학교이다.



12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은 2005년부터 12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 구성원 30여명은 2016년 11월 26일 개포동 구름마을에서 열린 '2016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여 1가구에 200장씩 10가구,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다.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2년부터 5년째 농촌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는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같은 곳에서 9월 25일에는 벼 베기를 진행하였다. 10월 8일에는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에서 오미자 수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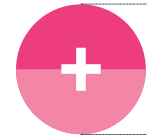


03

지평은 구성원의 후원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매칭그랜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칭그랜트는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는 총 50건의 후원으로 구성원과 지평 모두 나눔의 기쁨을 누렸다.

2016년 개인 후원 금액 (원)

24,450,000



2016년 후원금 합계 (원)

48,900,000

2016년 지평 후원 금액 (원)

24,450,000

기부의 활성화 '매칭그랜트'

매칭그랜트 후원 기관

겨레얼학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굿네이버스, 나눔인터내셔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먹거리나누기운동 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여성노동자회, 아름다운생명사랑,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인권재단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재단법인 진실의 힘,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한국컴패션,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해송복지원, 희망제작소

매칭그랜트 후원 기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법무법인 지평의 지원으로 국내 최초의 이주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매년 인권법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변호사님들과 함께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도 하고 지평의 변호사 여러분이 공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계셔서 매칭그랜트로 그 후원의 힘이 두 배가 됩니다.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구성원들의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지평의 매칭그랜트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몇 십 배가 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전합니다.



매칭그랜트 후원 기관 <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회장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성차별, 성희롱, 출산휴가 사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문의로 전화벨 소리가 잠잠할 때가 드뭅니다. '평등의전화'는 변호사, 노무사들의 재능후원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등의전화'의 고마운 후원자 여연심 변호사님의 인연으로 지평의 매칭그랜트 기부를 받고 있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소중한 것을 귀하게 나누고자 하는 지평에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



01

법률교육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지평은 201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7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평은 소송서면, 의견서 작성, 계약서 검토, 자유주제 발표 등의 과제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와 면접 과정을 거쳐 총 9명의 학생을 채용하였다.

인턴 선발과 채용결과에서 서울대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다수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고, 총 채용인원 9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이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하계 심화	2016년 하계 일반	2016년 통계
기간	7/4~7/8(1주)	7/11~7/22(2주)	1차 : 12/26~1/6(2주) 2차 : 1/9~1/20(2주)
대상	2학년(7기) (2015 동계인턴 중 우수자) 고려대 1명, 서강대 1명, 서울대 3명, 성균관대 1명, 연세대 2명, 원광대 1명	2학년(7기) 고려대 3명, 서강대 1명, 서울대 13명, 연세대 1명, 이화여대 1명	1학년(8기) 건국대 1명, 경희대 1명, 고려대 3명, 서강대 3명, 서울대 26명, 서울시립대 1명, 성균관대 3명, 연세대 2명, 이화여대 2명, 전남대 1명, 중앙대 1명, 한국외대 1명, 한양대 2명
인원	9명	19명	47명
채용	2명 (서울대 1명, 연세대 1명)	3명 (서울대 3명)	4명 (서울대 4명)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전하는 실무수습 후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손영우



후배들이 지평에 대해 물을 때 자신 있게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실무수습 과정에서 수행했던 과제 때문입니다.

로펌 실무수습을 가기 전 조언을 구하면 선배들은 수습 과정 중 수행하는 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로펌 실무수습 과제의 목표는 오직 '법' 실력을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성향, 가치관 등과는 무관한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평에서만큼은 이러한 통념을 깨는 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본인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건을 배당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정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과도 무관해 보였던 이 과제를 받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법 실력을 측정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과제를 차분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저에게 이 주제보다 더 좋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많은 로펌이 스스로 구성원을 존중하고 사회에 공헌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무수습부터 인재채용까지 아무것도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평은 '법' 실력 이전에 '사람'을 본다는 것을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유현정

지평에서 보낸 2주일은 변호사로서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의 첫 순서인 환영식이 끝나자마자 실무수습생들은 '대외비'라고 쓰인 두꺼운 서류 봉치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수행하셨던 사건입니다. 폰트도 형식도 제각각인 글 봉치에서 쓸만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혹 비어 있는 곳이 있다면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얻어내야 합니다. 실무수습 중에는 변호사님께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사실관계를 되문거나 불필요한 문답을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채용을 위한 평가가 중심이 되는 보통의 실무수습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혼자 과제를 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나 지평의 실무수습은 과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중시합니다. 조원들과 열심히 의견을 나누며 큰 줄기를 잡고 결론을 다듬어갑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협업하여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지평이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꼭 같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완성된 글로 버려내는 것은 다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이민주



지평의 실무수습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삶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무법인의 실무수습은 기간이 짧습니다. 통상 1주 정도로, 해가 갈수록 더욱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수습은 '일방적 지식 전달' 또는 '인턴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 제출', 두 가지로만 정철되고 합니다.

그러나 지평에서의 실무수습은 달랐습니다. 지평은 학생들의 관심사별로 변호사그룹을 연결하여 따로 일정을 만들고,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통상 불편할 수 있을 법한 식사자리에서조차,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변호사님의 관심에 따라 짧게 일상 속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정동길 투어'를 통해 서울의 중심을 함께 걸으며 거리마다 쌓여있는 삶의 맥락을 읽어내었던 시간은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실무수습을 함께 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서로의 꿈과 비전, 또 평소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또 하나의 삶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평의 실무수습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구성원 모두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02

인문학 연구 및 지원

법률교육기관, 공익법률활동에 대한 기부

지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예비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전 지원을 한 바 있다.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하여 애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차원의 지원이었다. 다만, 기존의 금전지원이 서울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혜택이 보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평은 법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공익법률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권법학회 연합[인·연] 캠프를 후원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지원했다.



법학 교육 지원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 또한 기성 법조인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에 지평은 예비법조인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평의 변호사들은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직접 출강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모두 8명의 지평 변호사가 6개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였다.

2016년 출강현황

김지형 대표변호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2학기
김지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학기
박용대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학기
박호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학기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임성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정 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학기
최승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1, 2학기
최승수 변호사	연세대학교 공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2학기

지평은 인문학의 토대가 넓어져야 하고, 인문학의 기초 위에 법학이 서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지평인문사회연구소(대표 김석동)를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평인문사회연구소의 김석동 대표는 중앙일보 J포럼, 서울대학교, 금융연수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인문학 발전을 위해 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원철 박사의 '사국사(Tarixi arba' ulus)' 번역출판을 지원하였고 시베리아, 중국 등지에서 유적탐사를 진행하는 등 역사탐방도 진행하고 있다.



03

법제 연구

연구용역과제 수행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법률가의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평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용역을 현저히 저렴한 비용을 받고 수행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 의뢰처	연구용역 과제명	연구용역 기간
한국거래소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상장 환경 법률자문 용역	2016-01-15~2016-02-29
외교부	국제빈곤퇴치기금법 제정안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2016-02-01~2016-03-31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호주편)	2016-03-16~2016-09-15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이란편)	2016-03-16~2016-09-15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이란편)	2016-03-16~2016-04-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R&D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지침 개발	2016-03-22~2016-04-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해외기관과의 협약체결 관련 법률지원 용역	2016-07-12~2016-09-02
(주)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담보 제도 및 채권회수 용역	2016-08-01~2017-03
법무부	투자·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라오스편)	2016-08~2016-08-3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담보주택 관리 효율화 방안	2016-08-05~2016-12-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지원사업 지방비 기술료 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2016-10~2016-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외 R&D 제도 분석 및 에너지 국제협력 공동연구 개선방안	2016-11-30~2017-04-30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2016-12-29~2017-01-03

공직 업무 수행기 박성철 변호사



공직 업무로는 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활동하는 일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직 업무는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에서만 본다면 대형로펌이 선호할 일은 아니지만, 제도 설계나 입법 초기부터 관여하면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사안에 따라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기관 등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말씀 드리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을 맡았고, 현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률쟁점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서 변호사 위원으로서 법률문제 전반을 사전에 살펴보고, 위험과 책임 소재를 알려드리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법 발전방향 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류협력의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보고서에 담은 내용도 많았을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연구원들이 모여서 남북관계 전반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유치중등교육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 정책연구'의 경우 보고서에 제안한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령 개정할 때 많이 반영되어서 뿌듯했습니다.



로펌이 연구용역을 맡으면 변호사들이 소송과 자문을 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과 자문에서는 현행 법률의 해석의 범주를 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연구용역은 그 틀을 넘어서 개정안까지 자유롭게 제안하여 입법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입법이나 제도개선에 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실제로 공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지평의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들에게는 연구용역이 대개 낮은 일이기 때문에 협업의 체계와 방식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얼마나 잘 이끌어주는지도 중요하지만 책임연구원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면 일을 할 때 흥미가 줄어들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도해야 일이 낫살고 힘들어도 돌파해나갈 수 있습니다.



04

환경실천 소모임 활동

환경실천소모임은 2015년 9월부터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변호사 3명, 직원 3명, 총 6명의 환경지킴이로 구성되어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소모임을 가지고 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마이보틀을 회사에 배포하였다. 마이보틀과 친해지자는 의미로 '나만의 마이보틀 꾸미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종이컵 사용 목표량을 정하여 실제 사용량을 점검하면서 차츰 사용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종이컵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16년 연말부터는 전기절약 캠페인으로 지평 본사 건물의 자동소등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다.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많은 로펌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매주 금요일 자정에 지평 본사의 전등을 자동 소등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해당 구역만 불을 켜기로 하였다. 초기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매일 자동소등을 하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실천소모임은 소소한 생활 속 실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2016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다 함께 환경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공익런치를 제안하여 '천연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천연방향제 만들기'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대안생리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6년에 '중고책방'을 운영하여 각자 소장하고 있는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반응이 좋아서 중고책 나눔을 상설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환경실천소모임의 소소한 실천이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지평의 환경지킴이들은 오늘도 즐겁게 노력하고 있다.



0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돕다

사회적기업 거래

지평은 설립 이래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증장애인 작업장에서 복사용지를 구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하상점자를 통해 점자명함을 제작하고 있다. 지평에서 고객들에게 내드리는 커피는 공정무역 업체인 아름다운가게에서 구입한 것이다. 다만 아직 사회적기업 등과 거래하는 규모는 크지 않다.

빛나눔보호작업장
25,074,000 원

하상점자
2,004,000 원

아름다운가게
960,000 원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익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6년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한 제도개선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성수동 소재 소셜벤처 법률자문 (트리플래닛, HGI, 루트임팩트, 닥터키친, FLRY, 마리몬드, 위누, 프라미슈, 두손컴퍼니, 베네팢 매거진 등)
-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 법률자문(영주시 다문화희망공동체 등)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협력 기업 법률자문(다누리맘 등)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성수동 소재 소셜벤처 대상으로 법률교육 '로큰롤' 진행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참여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법률지원

지평은 두루와 함께 2015년부터 SK 사회성과인센티브 (SPC) 프로젝트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SPC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프로젝트이다. 지평과 두루는 SPC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맑은손 공동체협동조합, 파머스페이스, 세진플러스 등 SPC 프로젝트 참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수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루트임팩트와 협력의 폭 확대

지평과 두루는 2015년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성수동 소재의 소셜벤처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률교육인 '로큰롤'도 진행하였다. 2016년의 법률자문은 트리플래닛, HGI, 루트임팩트, 닥터키친, FLRY, 마리몬드, 위누, 프라미슈, 두손컴퍼니, 베네팢 매거진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평은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통해 성수동 소재의 기업들과 점차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법률자문

지평과 두루는 2016년부터 지역사회의 착한 기업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동그라미재단과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평은 동그라미재단의 로컬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기업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되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 2000. 4. 법무법인 지평 설립
- 2007. 9.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 설립
- 2007. 9. 중국 상해 사무소 설립
- 2008. 9. 법무법인 지평지성 설립(법무법인 지성과 신설 합병)
- 2009. 1.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설립
- 2009. 3.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설립
- 2009. 11. 라오스 비엔티안 사무소 설립
- 2010. 4.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 2011. 3. 순천 사무소 개소
- 2012. 3. KT&G 서대문타워로 본사 이전
- 2012. 6. 부산 사무소 개소
- 2012. 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설립
- 2013. 3. 미얀마 양곤 현지법인 설립
- 2014. 1. '법무법인 지평'으로 사명 변경
- 2014. 1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파견
- 2015. 4.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
- 2015. 11. 이란 테헤란 사무소 설립